

지역 소식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익산시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에 나섰다.

시청 교육정보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3월 14~16일까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특성화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배포와 함께 사업 설명을 했다.

이 사업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전국대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차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로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버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사드배치 중국 보복 본격화

군산 항만 경제 '초토화' 우려

석도국제훼리호 여객·화물 운송 늘어나도 3월 말 중국인 단체·개인 350명 예약 취소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본격화 된 가운데 항만 도시 군산도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박을 이용해 군산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나 화물 수출이 눈에 띄게 줄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군산 경제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 6회(왕복) 군산에서 중국 스타도 항로를 오가며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 승객을 실어 나르는 석도국제훼리호 탑승객은 2016년 1월 7072명에서

올해 1월 1만850명으로 늘었다.

2월 역시 지난해 4472명에서 올 2월 1만94명, 3월 지난해 1307명에서 올 3월 2011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4월부터다. 1~3월은 비수기 기간이라 관광객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는 4월부터 중국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3월 말 석도국제훼리호 여객을 예약한 중국인 단체와 개인 350명이 예약을 취소한 바 있으며, 유통기한이

나 신선도에 민감한 식품류 화물 역시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4월 이후 석도국제훼리호 배편을 예약한 중국 개별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이 수출 화물의 통관을 늦추고 검역 마저 강화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경제로 떠넘겨진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로 협력업체의 대량 폐업 및 노동자의 대거 실직이 잇따르는 등 군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사태는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형국으로 전북도 및 군산시의 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공중화장실 2개소 흡연금지 시범설치

군산시가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사용을 위해 금강시민공원 화장실과 문화동 근린공원 화장실에 흡연금지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흡연금지기는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고 화장실 내에 담배연기가 발생하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흡연자가 담뱃불을 끄도록 유도하게 된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인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요관광지 화장실에 추가적으로 금지기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지기 설치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환경자원분석센터

'농약 등의 잔류성 시험연구기관' 공식 지정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행 기반 구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지방대학 특성화(CK-1) 안심안전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 참여 학과인 생물환경화학과 환경자원분석센터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 등의 잔류성 시험연구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자원분석센터는 농약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약 등록을 위한

잔류성 시험 및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특성화사업단 및 산학협력단 지원 아래 생물환경화학과 최후 교수 협력으로 "농식품융합대학 생물환경화학과 환경자원분석센터"가 개소됐으며, 교육 및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한 전처리

장비 등 연구·분석 장비를 갖추었다.

안심안전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 배종환 단장은 "원광대는 교육부 프라임사업에서 유일하게 농·생명 분야를 주제로 선정돼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원광대와 MOU를 체결한 대표적 농약 회사인 한국삼공(주)와 함께 다수의 산학협력기반을 소재하고 있어 산학연간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상가변영회 회장단과 간담회

익산시는 15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변영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마트의 진입 중심가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중앙상가변영회 등 상가변영회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익산시 소상공인 관련 시책 홍보에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과 상가변영회 회장, 임원들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상가변영회 회장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익산시의 상가변영회 회장들이 뜻을 같이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도로 이중굴착 방지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익산시는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2시경 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로 굴착사업에 대해 이중 굴착 방지와 복구 계획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상수도과의 3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 등 59건 21.3km의 도로 굴착사업을 심의했다.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에서 계획된 굴착사업을 부결시키는 등 엄정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을 주문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작업을 지양할 것과 보행자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도로 이중굴착을 예

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사관계자는 도로굴착 공사 전 교통대책 수립과 도로공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창의적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전'

군산시가 내달 14일까지 2017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2017년 군산시 역점사업인 3대 핵심과제 실행에 있어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의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군산시 3대 핵심과제 관련 경제활성화, 관광광역시, 어린이행복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대선공약과제 및 풍·화·농·수·산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군산 발전에 기여할 국가예산 사업 발굴 ▲예산절감, 시민생활 편의증대 등 행정능률화 제고를 위한 자유제안 3가지 분야이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행정시

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민제안의 응모는 제안사이트(www.epeople.go), 우편, 이메일(misan01179@korea.kr),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자체심사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등급에 따라 시상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심사결과 6월 중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공무원 제안공모 관련 일정과 제안 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454-230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내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식이 오래된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 ▲지방세 및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등 압류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다.

보조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연식의 차량은 전액을 ▲

2001~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 종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상에 대해선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한정된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수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8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군산시가 내달 4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 2만9423호와 공동주택 7만7846호에 대해 산정한 가격 정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9423호에 대하여 토지와 주택의 항목별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7만7846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하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454-2440)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서는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A large colorful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It features a young girl in the foreground, a stylized cityscape in the background,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and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Logos for 'Dream Hub GUNSAN' and '군산시 GUNSAN CITY' are also present.